

“-를 +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 이 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학문의 길을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논어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한다. 나 또한 지극히 단순하게 일 중에서 가장 쉽고 기쁜 일이 학문이기에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춘천 춘성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옆집 아줌마가 나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하였다. 아주머니 동생이 서울의 명문중학교에서 1-2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수학시험을 보지 않겠냐고, 아마도 나와 동생의 수준을 겨루어 동생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 겨루기에서 나는 우연하게도 서울의 명문중 학생을 이길 수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서울의 명문중학교 학생들도 별 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공부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어깨만 닿으면 잠을 잘 자는 나는 또래들에 비해 가사 노동량이 많아 수업 시간에 잘 잤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은 책상 위에서 자는 나를 깨우지 않으시고 수업이 끝날 때쯤 깨워 문제를 풀도록 하셨다. 칠권 앞에 나가 문제를 풀 줄 뿐 일로 ‘수학시간 1년 내내 잠을 자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셨다.

인접한 공업고등학교 오빠들의 수학시험 문제 풀어주고 공짜로 아이스크림 얻어 먹었던 일, 뒤늦게 친구 대타로 자유교양도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일 등등... 간호사가 꿈이었던 나에게 공부와의 인연은 이렇게 흥미롭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면 하는 만큼,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거짓없이 보여주는 성적표 그 자체는 나를 학문에 매료시켰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외국 잡지책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연구원의 이지적인 모습에 반했고, 화학 선생님께서 “타고난 재질이 있다”고 칭찬을 해준 것이 결국 화학과의 인연이 되었다. 합격한 대학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가지 못했으나 역세계도 운이 좋아 학사, 석사, 박사까지 무사히 한남대학 화학과에서 마칠 수 있게 되었다.

학문의 길로 접어들면서 나를 힘들게 한 일도 많았다. 그 중 학위 과정 중에 아이가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인력으로서의 한계와 내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심장에 무리가 가기에 제대로 한번 엮어보지도 못하고, 백일, 돌 사진도 무서워서 찍어주지 못했던 일들, 삶과 죽음을 넘나들다 전기 쇼크로 살아난 아이를 보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이제는 잘 자라 내 어깨를 쳐다보며 ‘우리 엄마는 왜 이리 작을까?’ 하고 약을 올리곤 한다.

순간 순간 헤어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더 낮은 곳을 보며 불평하거나 투정하지 않고 때가 되면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무던하게도 내 자신을 다스렸던 지난 날들. 그 같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인생을 보는 폭과 깊이를 넓고 깊게 하여 준 것 같고, 낮은 데를 바라볼 수 있는 겸허함과 매사에 감사한 마음이 앞서는 것 같다.

항상 1등보다는 무언가를 늘 재미있게 하는 습성 때문인지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 것은 10년 전쯤의 일이었다. 학위 졸업 후에도 불확실한 나의 입지가 계속 학문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 (이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변리사, 보석 감정사)으로 가느냐 하고 망설일 때였다. 92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 전기분석학회에 참가한 후 동경공업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을 때 냉큼 일본 문부성에서 주는 Visiting Research

Program을 소개해 주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동경공업대학의 M. Fujihira 교수를 만난 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었다.

92년 처음 동경공업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갔을 때 Fujihira 선생님은 일본의 통산성의 NEDO Program으로 유기 EL(Organic Electroluminescence Devices)과제가 선정되었고 나는 Kyushu 대학, Yamagata 대학, Pioneer와 함께 Kodak의 Tang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조금은 생소하였던 진공장비나 흥미로운 Nano scale의 AFM, NSOM, Femto-sec Laser 기기는 나를 집보다는 실험실에서 머물게 하였고,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장장 36시간의 열띤 논쟁을 한 뒤에 선생님이 그만 집에 가자고 할 때 실험실에 남아 계속하겠다고 하니 나의 야루끼(하고저 하는 의욕)는 당해 낼 자가 없다고 하시던 말씀, 장장 6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 후지산 정상(3333 m)에 올라 구름 걸친 산야와 바다를 보았을 때의 잔잔함과 고요함 등은 내 자신을 가끔씩 시험해보는 적절한 어려움이었고, 그 결과 동경공업대학 개교 이래 최단기간 졸업한 3번째의 얼굴로 지금도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하였던 것 같다.

지나고 보니 내 자신의 능력이 우수했다기 보다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무서움 없이 도전한 용감함이 큰 힘이 되었고 또 어려운 일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을 일구었다.

부족하나마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어느 위치의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우며 나에게 부족한 점, 어려운 점이 설사 있을지라도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저력을 보이는 것은 더더욱 아름답다”라고 전하고 싶다.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인생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윤대중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라 안부전화를 드렸더니 1달 전에 작고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가장 어려운 학창 시절에 - 를 +로 이끌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선생님.

오는 날도 가는 날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이승에서의 한 세상이 덧없이 느껴지며, 살아있는 순간순간 만큼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리고, 두서없는 줄필이나 이 모든 것이 훌륭하신 윤대중 선생님의 가르침이었기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리며 글을 마친다.